

신안 압해읍에 '행정복합타운' 들어선다

군, 총 170억 투입 가족센터·보훈회관 등 건립
2021년 완공... 교육·복지 등 종합서비스 제공

신안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등을 한 단계 높일 행정복합타운이 압해읍에 들어선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압해읍 학교리 일원에 행정과 교육, 복지, 의료 등 전 계층을 아우르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총 170억원이 투입되는 복합타운에는 가족센터, 보훈회관, 정신건강센터 등이

들어섬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다. 내년 3월에 착공해 오는 2021년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압해읍은 신안군의 관문으로 전체 인구의 16%가 거주하는 등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가족복지 분야 서비스 시설 등은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비롯, 교육·복지 등 한 곳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타운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센터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지형과 지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친화적 건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복합타운 내 가족센터에는 압해읍 주민센터와 상담센터, 다문화가족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2개실, 6개 팀을 구성,

건강가정 지원과 취약 위기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통번역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보훈회관에는 건강증진센터와 450석 규모의 공연과 스포츠 시설이 가능한 다목적홀이 자리잡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교육실과 프로그램실이 선보인다. 박우량 군수는 "민선 7기 군정 방침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인간다운 신안' 실현을 위해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 구축'과 'ICT기반 1004나눔 복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복합타운 조감도. /신안군 제공

"저소득주민, 낙도 주민, 사회적 약자 등 1004섬 곳곳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NH농협 영암군지부, 공익기금 전달식

영암군청서 지체장애인협회에 500만원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지부장 오정현)는 최근 영암군청에서 관내 지체장애인을 위한 'NH농협카드 공익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전달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조정기 군의회 의장, 박현주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후원금 지원과 소외계층 지원사업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전달된 후원금 500만원은 관내 지체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원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정현 지부장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눔문화와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해수청, 등대시설 55기 특별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주요 항로에 있는 등대 55기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목포구등대 등 등대 13기, 등부표(부유식) 37기, 등표(고정식) 5기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하고, 중대한 하자는 수리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4일 "여객선이 통항하는 주요 항로에 설치된 등대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뱃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맛의 도시' 목포 음식점 71% '만족'

가격·주차공간·특색있는 메뉴 등 개선 대상

'맛의 도시' 목포의 음식점 이용객 10명 중 7명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는 4일 "지역 음식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71% 이상이 친절·친절·맛 등 전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북항 회센터와 평화광장 일원 등 관광객이 밀집하는 곳에서 음식점 이용객을 대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 무작위로 이뤄진 조사에는 2,265명이 응답했으며, 설문항목은 친절·맛·청결·가격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1,000만 관광객을 위해 시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맛의 도시 목포로 발전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연령층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체 방문객의 71%가 친절·맛·친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맛에 대해서는 80.7%가 만족을 표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61.1%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보통'이라는 평가도 35%로 적지 않았다. 또 주차공간 부족, 1인 메뉴 및 유아 동반 시설 부족, 목포만의 특색 있는 메뉴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및 특별 위생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 밀집지역에 현장 관리부스 운영 및 위생감시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바로 듣고 개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특화거리 조성, 입식테이블 지원 확대, 깨끗하고 청결하며 믿을 수 있는 음식서비스 제공 등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예술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 인기

해남 남도수목기행 템플스테이 등 콘텐츠 호응

해남군과 행촌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통문화 체험관광프로그램 '예술과 함께 떠나는 남도수목기행'이 해남의 문화를 알리는 특색있는 관광체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도수목기행은 해남에서 1박 2일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촌문화재단의 예술과의 만남·수목체험과 대흥사 템플스테이·남도소리체험 등으로 해남의 문화와 자연을 답사한다.

새금다정자의 차문화 체험과 삼산·해장 막걸리주조장의 전통주 체험, 남도 한식과 지역장터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단순 관광지 방문이 아닌 예술·역사와 연계한 인문여행으로 관련 분야 예술인과 큐레이터가 동행해 깊이 있는 작품 설명과 역사문화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호평받았다. 여름 휴가철 가수 하림이 함께한 아트투어를 비롯해 지금까지 22차례 프로



해남의 역사문화를 1박 2일 탐방하는 남도수목기행이 특색있는 관광체제로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 제공

그램에 600여명이 참여했다. 운영하며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두리봉사회, 사랑의 쌀 300kg 기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 목포·무안지회 두리봉사회(회장 안문기)는 최근 삼향읍사무소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300kg(10kg 30포)와 소금 200kg(20kg 10포)을 전달했다. 기부된 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무안 두리봉사회는 저소득가구에 연

탄이나 쌀을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을 5년째 펼치고 있다. 안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고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며, 지역의 힘든 이웃들에게 훈훈함이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해군3함대·육군 31사단 합동 김장봉사

해군 제3함대사령부 소속 3해상전투단은 최근 육군 31사단 96연대 장병들과 합동으로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김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3전투단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분기마다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요양원 주변 잡초제거, 창고정리 등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3전투단 10명과 함께 육군 31사단 96연대 소속 육경정 인원 8명도 함께해 해·육군이 하나 되는 뜻깊은 '합동 김장 봉사작전'이 이뤄졌다. 3전투단 권복원 주임원은 "장병들이 담긴 김치를 겨우내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경찰 2019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목포경찰서(서장 김영근)는 최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시의회 의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을 공유했다. 목포경찰서는 특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정책과 관련해 목포시의 협조를 요

청했고, 중요사건 긴급영상시스템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구축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을 강조했다. 김영근 서장은 "케이볼카와 천사대교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교통, 기초질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